

소제목 ▶▶▶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5:37-38)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그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그 말씀이 있지 않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한 자 속에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삽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직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접근하고 속여서 돈 끌어 모아 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믿는 자란 말입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그가 믿는 사람이나는 말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3)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 말씀하며 율법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말씀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살전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매일 말씀 듣고,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찌르고, 내 양심을 건드리고,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상관하고, 간섭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어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해도, 비판해도, 원망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속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 속에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5)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진짜 믿는 자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 성질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도 아닙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것 말고 진짜 내 속에,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직분도,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팔 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붙들고 산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 자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그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더 새롭게 경험시켜 주시길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암송 및 묵상 말씀 ☞ ☞ “ 데살로니가전서 2 : 13 ”

◆ 적용 ◆

1. 최근에 내 속에 거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2.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 육신과 자아의 반응 때문에 찢리고 걸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찌르고 드러낼 때 합리화하거나 한숨짓고 물러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 “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 ♥♥